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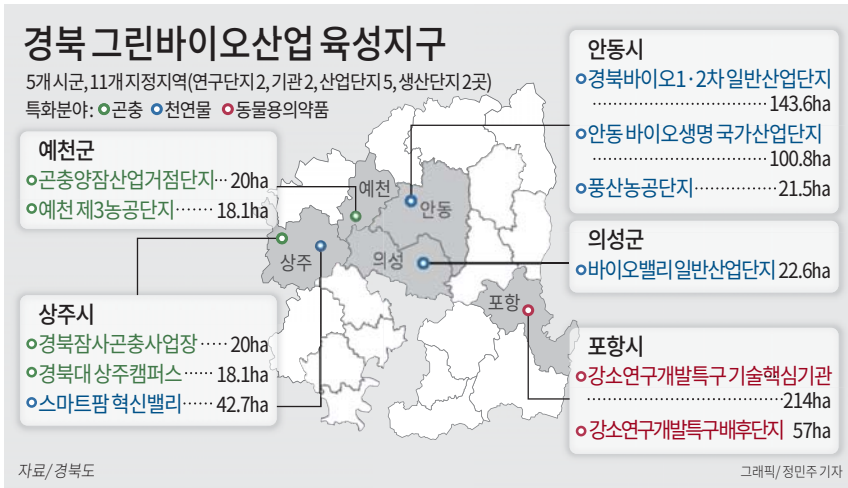
경북도, 동물용 의약품·곤충·천연물 특화 그린바이오 육성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선정
5개 시군, 11개 기관·산단 포함
2031년까지 4725억 투입 예정

경북도는 농업축산식품부가 추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바이오산업은 레드(의약), 그린(농업·식품), 화이트(에너지·소재)로 구분되며, 그중 그린바이오는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농업과 전후방 산업 전반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성장산업이다. 농식품부는 국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지난 6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해 경북도를 포함한 7개 지역을 육성지구로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경북도 그린바이오 산업 혁신융합지구는 식품, 천연물, 미생물, 곤충, 종자, 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 중 동물용 의약품, 곤충, 천연물 3개 분야를 특화해 추진한다. 육성지구에는 포항, 안동, 상주, 의성, 예천 등 5개 시군의 11개 기관과 산업단지가 포함되며 전체 면적은 756ha로 전국 최



대 규모다.

육성지구 지정에 따라 기업에는 그린바이오 분야 국비사업 참여 자격과 입주 가점이 부여된다. 지자체는 지구 내 시설과 용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민간에 사용·대부할 수 있게 돼 기업 지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육성지구에는 33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90개 기업이 입주·투자의 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경북도는 이들 기업과 함께 경북형 밸류체인을 완성해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비전

을 제시했다. 3대 분야 중심의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유니콘기업 3개사 육성, 수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31년까지 산업화 지원과 인프라 구축 등에 총 4725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1700억원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나머지는 국비 확보와 지역활성화 펀드,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전용펀드 등을 연계해 단계적으로 집행된다.

분야별 거점기관은 동물용 의약품은 포항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곤충

분야는 예천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 천연물 분야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이 맡아 식품, 화장품, 의약품 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한다.

경북도는 육성지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내에 추진단을 설치해 초기에는 행정 주도로 기반을 다지고, 이후 민간 중심의 자생적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통해 연간 20개 이상의 스타트업 배출, 사업화 기간 30% 단축, 2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1조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원료 소재 발굴과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전후방 산업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는 농업과 기업 간 새로운 상생 모델이며 미래 농업이 신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경북 그린바이오산업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선도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영주시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위탁

영주시가 상수도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손을 잡았다. 이번 협약으로 전문기관에 상수도 전반을 위탁해 물 관리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구간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오는 2026년 1월부터 2035년 12월까지 10년간 영주동·후천동·상망동·하망동 일대 상수도 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군산시

군산 선교역사관 개관식

군산시는 2일 구암동 현지에서 군산 선교역사관 개관식을 열고 근대 선교역사의 가치를 돌아보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종교계, 시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근대 선교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선교역사관 개관식을 축하했다.

군산 선교역사관(구암동 334)은 지난 2022년부터 총사업비 62억원을 들여 조성된 시설로, 지역의 근대 교육기관이었던 ‘멜볼린 여학교’의 모습을 본떠 건축돼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

/군산(전북)=정훈 기자 taiji1819@

완도군

해양치유센터 개관 2주년 맞아

국내 최초 해양치유 전문 시설인 완도해양치유센터가 개관 2주년을 맞았다.

해양치유산업은 우리나라 해양신산업으로, 완도군은 선도 지자체로 투자 및 운영 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지난 2023년 11월 해양치유센터는 개관 이후 운영 안정화 단계를 거쳐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며 누적 이용객 12만 명을 기록했다.

개인·가족 단위 방문객을 비롯해 건강관리를 위한 고령층과 장기 치유객, 기업 연수, 스포츠팀 재활 등 이용층이 다양하게 형성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김해시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4개 열려

김해시는 12월 전국 규모 스포츠 4개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5 경남 라인댄스 마라톤 축제’, ‘제1회 김해시 풋살연맹회장배 전국 풋살대회’, ‘제2회 김해시장배 전국 킥복싱대회’, ‘제42회 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생활체육전국배드민턴대회’ 등이 개최된다.

또한 김해시는 대규모 스포츠대회를 개최를 이어가기 위해 3일 ‘김해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의 3개년 유치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김해시와 한국실업육상연맹, 한국대학육상연맹, 경남육상연맹 4개 기관의 협약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전국 육상대회 유치와 안정적 개최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김해(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남도, 산재예방 우수기업 8곳 선정

모범기업, 내년부터 장려 혜택 받아
올해 선정업체, 5개 → 8개로 확대

경남도가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선 도내 기업 8곳을 2025년 우수 기업으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도는 청림열처리, 원비두기술, 김스 엔지니어링, 에어로디스펜싱솔루션, 백산기업, 준우기업, 진영에이치앤에스, 디유환경을 우수 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안전 설비 구축, 근로자 안전교육·건강관리,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했다. 경영 책임자가 적극 나서 현장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에 뒀다.

법규상 의무 이행을 넘어 지게차 스마트 알람 센서 같은 안전 장비에 세심하게 투자했다. 공정별 맞춤형 위험성

평가와 개선 조치를 진행해 지난 3년간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해왔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이 인증 사업은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 중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범 기업을 골라 장려 혜택을 주는 제도다.

도는 올해 선정 업체를 5개에서 8개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안전보건 컨설팅, 법정 안전보건교육 제공 등 지원 혜택도 크게 늘렸다.

지난 9월 접수를 시작해 서류 심사,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현장 평가, 경남도 산업재해예방위원회 의 최종 심의 등을 거쳐 선정 작업을 마쳤다.

인증 기업들은 내년부터 각종 장려 혜택을 받는다. 인증서와 현판도 받는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목포시,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 공유

“최우선 과제, 재정건전성 확보”

목포시는 지난 2일 목포시의회 제 401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재정 운영 방향과 주요 편성 내용을 밝혔다.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2026년 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재정건전성 확보”라고 강조하며, 재정 여건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삶과 목포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올해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업 침체와 인구 감소가 지속되며 시 재정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출구조 조정 ▲세입 증대와 세출 효율화 ▲국·도비 보조사업 재정비 등을 중심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행정운영경비 30% 절감, 행사·축제비 20% 조정, 불요불급 사업 전면 재검토 등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이미 단행했다.

목포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조 267억원으로, 일반회계 9421억원, 특별회계 846억원이다. 시는 미래성장산업, 관광·문화, 사회복지 등 7대 분야에 재정을 집중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나주시, ‘국립 에너지 전문과학관’ 유치

2030년 완공 목표… 460억 투입

전라남도 나주시가 전국 유일의 ‘국립 에너지 전문과학관’ 유치에 최종 성공했다.

시는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비가 반영되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히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에너지 산업, 미래 과학, 교육 콘텐츠를 아우르는 국가 단위 핵심 플랫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2일 국회 의결을 거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기본계획수립비 5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은 전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조감도
/나주시

국 유일의 에너지 특화 과학문화시설로 나주는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국가사업 추진의 분수령을 넘었다. 이번 예산 반영으로 2026년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된다.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은 총사업비 460억원(국비, 지방비 각 50%)이 투입되며 빛가람동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연면적 6805㎡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나주(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울진군,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합동설명회

오는 10일 열려… 주요계획 등 공개

울진군이 원자력 기반 수소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울진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민 대상 합동설명회가 오는 10일 열리며, 주요 계획과 영향평가 초안이 본격 공개된다.

군은 오는 10일 죽변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북개발공사가 주관하며, 울진군과 관련 용역사, 기관이 참석해 산업

단지 추진 전반을 소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산업단지계획(안)을 비롯해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초안, 기반시설 계획, 향후 추진 일정 등이 상세히 안내된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죽변면 후정리 일원 144만8600㎡(약 44만 평) 부지에 조성된다. 총 4334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원자력과 연계한 수소 대량생산 기지를 구축해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